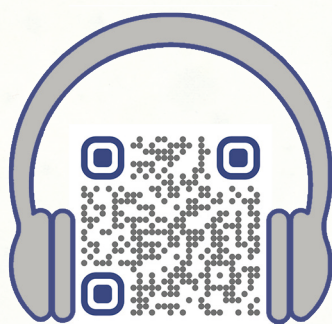


이 야 기 가 있 는 그 림 전

《민들레는 민들레》

민들레는 작고 흔한 꽃입니다.
하지만 굳세고 당당한 꽃이기도 하지요.
들에서든 길가에서든 낮은 지붕 위에서든
혼자서든 둘이서든 여럿이서든
어김없이 초록 잎 노란 꽃을 피워 내니까요.
그림을 보며 민들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.
그리고 우리도 곳곳하게 살기로 해요.
어디서나, 누가 뭐래도, '나는 나야!'하고
노랑게 외치는 민들레처럼.



노래와 함께하는 그림책입니다.
큐알코드를 스캔하여 <민들레는
민들레>를 들어보세요.

글쓴이 : 김장성 | 산과 노래와 그림을 사랑하는 아저씨입니다. 그림책이 좋아서, 그림책을 쓰고 만들고 퍼내는 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. 어디에 있든 어떻게 있든 무엇을 하든 민들레는 민들레인 것처럼, 누구나 참다운 제 모습을 지키고 가꾸며 자기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바랍니다.

그린이 : 오현경 | 도시에서 태어났지만 마당 가득 나무를 심어 주셨던 할아버지 덕분에 봄마다 라일락과 목련, 철쭉꽃을 보며 자랐습니다. 봄비가 오면 마당에 라일락 꽃비가 내렸던 걸 잊지 못합니다. 수줍고 말이 없던 아이 시절엔 혼자 풀과 벌레들을 지켜보기를 좋아했고, 종이에 그것들을 그리고 오려서 가지고 놀았습니다. 지금도 꽃과 풀, 나무, 새싹 나는 봄을 가장 좋아합니다. 전통문화나 생태계처럼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것들을 그림에 담아 아이들에게 보여 줄 생각입니다. 물론 집에 있는 다섯 꼬마들에게도 말이지요. HILLS에서 그림책 공부를 하고, 이 그림책을 첫 번째로 만들었습니다.

민들레는 민들레

쌈이 터도 민들레, 잎이 나도 민들레, 꽃줄기가 쏙 올라와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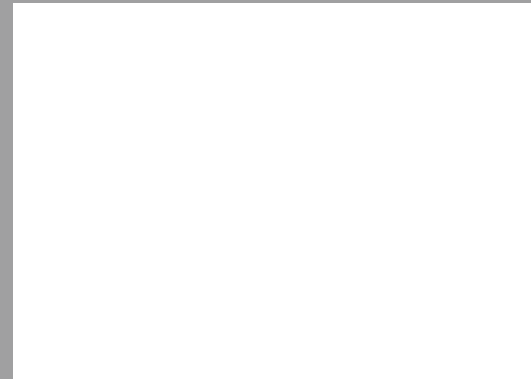
민들레는 민들레

여기서도 민들레, 저기서도 민들레

이런 곳에서도 민들레는 민들레

혼자여도 민들레, 둘이여도 민들레

들판 가득 피어나도



민들레는 민들레

꽃이 저도 민들레, 씨가 맺혀도 민들레

훅~ 바람 불어 하늘하늘 날아가도

민들레는 민들레

민들레는 민들레

쌈이 터도 민들레, 잎이 나도 민들레, 꽃줄기가 쏙 올라와도

민들레는 민들레

여기서도 민들레, 저기서도 민들레

이런 곳에서도 민들레는 민들레

혼자여도 민들레, 둘이여도 민들레

들판 가득 피어나도

민들레는 민들레

꽃이 저도 민들레, 씨가 맺혀도 민들레

훅~ 바람 불어 하늘하늘 날아가도

민들레는 민들레